

나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누가 정했지? 나의 태양을 집어삼켰다고 누가 정했지? 정하는 건 나다. 죽어라.

그나저나 당신들은 어리석은 데다가 운도 없군요.

"인간입니다. 다만, 모든 종족의 정점에 선 자이기도 하죠. 이 몸이 바로 일곱개의 대죄, 오만의 죄라이온 신, 에스카노르 님이시다."

"왜 아픈가 했더니 내 공격이라서였군요. 역시 이 몸이야."

인간이 널 내려다보니 기분이 어떨까?

나한테 명령하려 하다니 건방 맥스!

어지간히 내게 박살나고 싶은 모양이로군. 때가 되었다.

모든 것은 친구를 위해.

아무런 힘도 없는 나 따위를 동료로 인정해줬으니까...

낮의 나도 밤의 나도 똑같이...다들 정말로 강하고 정말 다정해...

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왔어.

그것이 나의 금지야.

나는<일곱개의 대죄>...교만의 죄라이온 썬 에스카노르다.

친애하는 벗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.

"이제부터 우리 일곱 명이 이를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일입니다!"

그럼...슬슬 진심으로 가볼까

그리고, 방금 전 네놈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추가되었다.

정오다.

네놈의 일격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.

나는 지금껏 내 자신에게 맹세해왔다. 한때는 놓으려 했었던 목숨! 너를 위해! 동료를 위해 걸겠노라고!

고서 군. 당신은 저의 좋은 말동무 였어요.

킹 군, 다이앤 씨.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부디 행복하세요.

엘리자베스 님, 페하와 헨디 군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세요.

마엘 씨... 마지막까지 신세가 많았습니다.

반 씨. 술은 적당히 드세요.

단장.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이자 유일한 벗이었습니다.

멀린 씨.

계속 당신을 좋아했습니다.

결코 로자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.

당신은 이런 저를 다른 누구와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었어요.

"여...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!"

뭐, 상대가 저였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요

안마 실력이 그럭저럭이군요

제 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군요....

여유를 부리는 것이 강자의 특권입니다.

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.

실컷 발버둥 쳐보시길

네놈은 강하다. 나 다음으로 말이지

태양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깃들어있던 힘. 은총이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죠

나와 같은 편인 이상 승리는 약속된거나 마찬가지니까

호오. 제 일격을 맞고도 상처하나 없다니, 건방지시군요

허풍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

제게 명령하려하다니 거만함 MAX군요.

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따랐을 뿐입니다.

때는 무르익었다. 더 원.

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다니 오만한 생각입니다.